



출연(연), 1인당 복리후생비 들쭉날쭉

직원 복리후생비 편차, 기관장 연봉 편차의 14배 KIST와 안전성(연) 비교 결과 반전

□ 민병주 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'출연(연) 기관장 연봉 및 직원 복리후생비 현황'에 따르면,

- 2012년, 출연(연)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연 216만원이며, 최저 연 73만원(생명연)에서 최고 연 559만원(핵융합연)까지 편차가 큰 것(표준편차 123)으로 나타났음.

* <표1. 출연(연)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현황 > 참조

<표1. 출연(연)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현황>

(단위 : 만원)

| 기관명 | 1인당 복리후생비 | 기관명 | 1인당 복리후생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국가핵융합연구소 | 559 | 한국항공우주연구원 | 193 |
| 안전성평가연구소 | 496 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190 |
|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| 405 | 한국표준과학연구원 | 190 |
| 한국식품연구원 | 315 | 재료연구소 | 186 |
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| 287 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| 178 |
| 국가보안기술연구소 | 252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114 |
| 한국원자력연구원 | 247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 | 113 |
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232 | 한국천문연구원 | 99 |
| 한국지질자원연구원 | 217 | 세계김치연구소 | 92 |
| 한국전기연구원 | 201 | 한국한의학연구원 | 92 |
| 한국화학연구원 | 196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 | 74 |
| 한국기계연구원 | 194 | 한국생명공학연구원 | 73 |
| 표준편차 | 123 | 평균 | 216 |

* 2012년 말 기준

* KIST 부설 녹색기술연구센터는 해당없음

○ 출연(연)의 기관장 연봉 현황을 보면 평균 1억 32백만원 수준이며 최소 1억 16백만원(국보연)에서 최대 1억 57백만원(지자연)으로 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(표준편차 9)으로 나타났다.

* <표2. 출연(연) 기관장 연봉 현황 > 참조

-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의 편차가 기관장 연봉 편차의 **13.7배** 수준임.
- 또한,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74만원 수준으로 24개 기관 중 23번째였으나 기관장 연봉은 24개 기관 중 2번째임.
- 반 면,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는 496만원 수준으로 24개 기관 중 2번째였으나 기관장 연봉은 24개 기관 중 23번째임.

<표2. 출연(연) 기관장 연봉 현황>

(단위 : 백만원)

| 기관명 | 기관장 연봉 | 기관명 | 기관장 연봉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한국지질자원연구원 | 157 | 한국화학연구원 | 131 |
| 한국과학기술연구원 | 146 | 재료연구소 | 126 |
| 한국원자력연구원 | 146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126 |
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146 | 한국기계연구원 | 126 |
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136 | 한국생명공학연구원 | 126 |
|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| 136 | 한국식품연구원 | 126 |
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| 136 | 한국천문연구원 | 126 |
| 한국항공우주연구원 | 136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 | 126 |
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| 135 | 한국한의학연구원 | 126 |
| 국가핵융합연구소 | 131 | 세계김치연구소 | 121 |
| 한국전기연구원 | 131 | 안전성평가연구소 | 121 |
| 한국표준과학연구원 | 131 | 국가보안기술연구소 | 116 |
| 표준편차 | 9 | 평균 | 132 |

* 2012년 말 기준

* KIST 부설 녹색기술연구센터는 해당없음

□ 민병주 의원은 “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출연(연)의 복리후생을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” 이라고 강조하며,

- 이어서, “기관장 연봉에 비해 직원 복리후생비는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는데,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 수준 개선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기관장들의 각성과 책임있는 자성적 노력이 필요할 것” 이라고 지적함.